



김동원 총장이 지난 23일 네팔 카트만두 매리어트호텔에서 주최한 '제5회 아시아개발학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아시아 대학 교육 연합 확대에 심혈

전북대 김동원 총장, 네팔 '아시아개발학 심포지엄'서 협력체계 구축 강조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아시아 대학 교육 연합(AUEA)'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 전북대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주요 3개 대학에 AUEA 교환학생 43명을 파견한 데 이어 캄보디아, 네팔 주요 대학과도 교류 협

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동원 총장은 지난 23일부터 1박 2일간 네팔 카트만두 매리어트호텔에서 주최한 '제5회 아시아개발학 심포지엄'에 참석, 아시아 대학들에게 전북대 AUEA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김 총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아시아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중 빈곤은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장은 "전북대는 올해부터 AUEA를 구성해 학생 교류를 위한 아시아 대학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공동 연구

를 통해 대학 간의 학술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전북대는 국가나 대학을 가리지 않고 학생 교류와 공동연구의 뜻을 같이 하는 아시아 대학과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한 아시아 대학 국제협력 담당 처장들은 전북대 AUEA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며,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장은성 기자

"민주항쟁지로 역사 속 민주뿌리 찾아 떠나요" 전주비전대,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초청 특강

도교육청, 현장탐방 교원 연수

전북도교육청은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호남권 민주항쟁지 현장탐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5~26일, 11월 15~16일 두 차례에 걸쳐 초·중등교원 및 전문직을 대상으로 심진강 주변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 일원을 중심으로 민주뿌리를 찾아 떠나는 현장탐방 연수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자유·인권·평화감수성을 내면화하고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탐방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수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1일차에는 선비문화와 항일정신이 깃든 남원 '세계정사'와 곡성 '금곡교', 매천 황현의 순국투쟁지 구례 '매천사', 민주시민의 뿌리를 찾는 '석주관성과 칠의사보'를 탐방하고,

학교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활성화 방안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2일차에는 녹천 고광순 의병장의 전투지 구례 '연곡사', 분단의 역사를 담은 '지리산 역사관', 민족주의자 차일혁의 발자취를 느끼는 하동 '송림공원', 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운동주 시인의 유고 보존가옥 광양 '방덕포구'를 탐방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이 민주항쟁지 현장탐방을 통해 역사 속 민주뿌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민중들의 참여와 실천정신을 배우고 민주시민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향후에도 도교육청은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교원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민주시민교육 실천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최근 비전관 4층 대강당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날 특강에서는 '꿈이 있는 삶'이란 주제로 김제 출신 정갑영 전 연세대 학교 총장을 초청해 강의를 펼쳤다. 경제학자이자 교육행정가인 정 전 총장은 연세대에서 호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총장에 취임해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로서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갑영 전 총장은 '나는 누구인가?' '장벽을 넘어' 라는 2가지 화두로 "지금 시대는 의지만 있으면 뛰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면서 "큰 꿈을 품고 혼신의 힘을 다해 도전하고 실행하면 우리 안의 잠재력을 끌어내,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전 총장은 "연세대학교도 약관 26세의 선교사 언더우드 의 작은

걸음에서부터 비롯됐다"며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꿈을 품는 것을 통해 impossible를 I'm possible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이나 각자의 여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큰 뜻을 품고 실행하느냐 않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가를 뿐이다. 젊음은 짧다. 생각의 틀을 바꾸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고 역설하면서 "실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장애물은 증석물촉의 자세로 집중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2019년에 입학한 김소진양은 "총장님이 아껴주신 참 편안하게 느껴졌다"면서 "실감나는 사례를 들어 쉽게 말씀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고 앞으로의 대학생활과 졸업 후 삶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현장훈련 통해 안전문화 조성한다

도교육청, 재난대응 훈련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전북지역 교육행정기관 1,314곳에서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훈련은 자연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한 학교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훈련은 각급 학교 및 기관별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사고를 가정해 실제와 같은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토론훈련은 5일 동안 각기 다른 주제로 진행된다. 실천 중심의 토론훈련을 통해 초기대응 및 상황판단, 상황관리, 결과 보고 등의 절차를 익힌다.

세부적으로는 28일 유치원 현장체험 학습 버스사고 수습 훈련, 29일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안전 확보방안, 30일 방사능 누출사고시 대응조

치 및 행동요령, 31일 실험·실습실 화재사고 수습방안, 11월1일 식중독 및 감염병 사고예방 훈련 등이 이어진다. 특히 훈련 둘째 날에는 전주 인봉초등학교에서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현장연계 훈련도 병행한다.

또 30일에는 전국단위 민방위훈련과 연계한 지진대피훈련이 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상황보고체계 점검 훈련, 공무원 비상소집훈련, 소화기 사용훈련도 마련되며 훈련기간 중 하루는 모든 기관에서 재난·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실제상황을 가정해 체험위주의 다양한 훈련으로 진행된다"면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까지 적극 참여해 안전의식과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고,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과학교육과 물리전공 동아리 인다미르팀이 '2019 편편사이언스' 과학콘텐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륙양용 진동 로봇' 이목 집중

전주대 과학교육과, 과학콘텐츠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전주대학교 과학교육과 물리전공 동아리 인다미르팀은 2019 편편사이언스 과학콘텐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이 주관한 과학콘텐츠 경진대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이틀간 진행됐다. 행사 기간 동안 약 3만 명이 방문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다미르팀(과학교육과 1·2학년 이진우, 이윤승, 김서현, 정해도, 안영진, 이혜성 학생 및 윤마병 지도교수)은 '수륙양용 진동 로봇'을 선보였다. 편향으로 인해 무게 중심이 바뀌는 진동을 이용해 육상과 수상 모두 곳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륙양용 로봇은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또 행사 기간 동

안 '수륙양용 진동 로봇'을 직접 만들어보는 DIY 과학체험부스도 운영하며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인다미르팀 이진우 대표학생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양한 과학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만들고 싶고, 예비 과학교사로서 수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교육과 인다미르팀(이진우 학생은 과학교사 준비를 위한 물리 전공 동아리로 각종 과학 경진대회, 과학체험부스 및 고등학생 대상 전공체험, 고교 연계 활동 등에 참여하며 일반 학생들에게 물리학의 재미를 전하고 전주대와 과학교육과를 알리고 있다. /장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우리 농축산물로 농촌행복도, 국민행복도

슬기하고! 농미고!

우리 농축산물과 함께하면 365일 더 건강하고 즐거워집니다

100% 국내자본 농업이 농촌도, 국민도, 대한민국 경제도 더욱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업

NH 농업

2019년 우리 농축산물로 즐거움을 여세요!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 지부장 이문식 | 고창농협 조합장 유덕근 | 선운산농협 조합장 김기욱 | 대성농협 조합장 김민성 | 해리농협 조합장 김갑선 | 흥덕농협 조합장 백영종 | 고창부안축협 조합장 김사중